

바이오산업 생산규모 3조원 육박

기술표준원, 2005년 생물산업 생산 14.5% 증가 ... 군소 비중 32%

바이오 식품과 생물의약 등 생명공학(BT) 기술을 이용한 바이오산업 생산규모가 2자리수 성장을 지속하고 관련기업들의 고용과 투자도 증가하는 등 생물산업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발표한 <2005년 국내 생물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2005년 국내 생물산업의 생산규모는 2조7714억원으로 전년대비 14.5% 늘어 2004년(16.4%)에 이어 높은 성장세를 구가했다.

생물산업 통계조사 대상은 ▲생명공학기술을 제조해 생산과정에서 직접 이용하는 산업 ▲생명공학기술로 만들어진 원재료를 이용하거나 연구개발단계에서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는 산업 ▲연구개발단계나 생산과정에서 생물공학적 과정에 이용되는 기계, 장비, 플랜트 등을 생산하는 산업 등으로 조사는 모두 708개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생물산업 전반의 규모가 커진 것과 함께 해당분야 기업들도 매출과 고용, 투자규모 등이 늘어나며 산업화에 진전을 보였다.

2004년과 2005년 모두 조사가 이루어진 609개 기업은 2004년에는 매출 10억원 미만과 매출액이 없는 기업의 비중이 각각 34%, 33%에 달했으나 2005년에는 각각 32%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대신 매출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과 50억원 이상의 비율은 2004년 21%, 12%에서 2005년에는 22%, 14%로 각각 높아졌다.

또 고용규모 10인 이하 기업의 비중도 2004년 47%에서 2005년에는 32%로 낮아졌고, 1개 생물산업체당 평균 투자규모는 12억5200만원으로, 2004년 조사 때보다 27.5% 늘어났다.

한편, 국내 생물산업의 전체 생산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바이오식품(41%)과 생물의약(40%)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고 생물화학(7%), 생물환경(5%), 생물검정 및 정보서비스, 연구개발(3%) 등이 뒤를 이었다.

생물산업의 전체 종사인력은 연구직 7430명, 생산직 6437명 등 모두 1만3867명으로 1년 전보다 1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26>